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선언문

오늘날 세계는 격랑과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파괴를 심화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체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정부나 각국의 정부들은 근본적인 대안을 열망하는 민중의 염원과 반대로, 인간의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용하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없고, 자본주의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시대는 기업세계화로 인해 건강 관련 사안이 일국가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좁은 의미에서의 보건의료문제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속에서의 시장원리도입과 민영화, 의약품 접근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광우병과 GMO로 대표되는 식품안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국제적 신자유주의 협정, 기업감시와 노동안전과 노동조건 문제, 여성·아동·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들이 연관된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연대를 우리의 연구와 활동주체로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천할 연구와 활동의 주체들도 보건의료인들만의 참여로부터 그 범위를 넓혀 다분야의 공동참여로 확대하면서 근본원리 역시 민주적 원칙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와 민영화라는 원리를 근간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조차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명목으로 의료보장제도를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는 우리의 건강을 대형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같은 돈놀이 투기꾼들에게 넘기는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이 존재하는데도 값이 너무 비싸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와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여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강화,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 의료제도를 무역의 '장벽'으로 간주하는 자유무역협정이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제협정의 도입추진은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탐욕추구대상을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제도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건강의 파괴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 여전히 단순한 기계들의 부품처럼 취급받으며, 온갖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로운 교역은 오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뜻할 뿐, 노동은 더 많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예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모두 쓰고 버림당하는 폐기물처럼 대우받고 있다. 아동노동의 금지 역시 선언문에서나 존재할 뿐, 굶주린 아동들에게 오히려 최악의 임금과 살인적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이 보편화된 ‘기아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창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건강의 파괴는 생산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복리를 위해 활용되기보다 난자를 포함한 장기매매를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 없이 진행 되는 임상실험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생체 실험이 되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주변인과 소수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피해의 맨 앞줄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21세기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인 복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거주환경마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파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이미 눈앞에서 시작되면서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이윤 때문에 각국정부와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추구를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화석에너지를 고갈시켜 지구가 파괴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핵발전이 주된 대안으로 재포장되어 제시되고,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는데도 이런 현실이 인간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 거대 농축산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종자부터 그 유통까지를 공장형 축산이나 에너지 낭비형 곡물생산 더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종자와 동물의 생산으로 대치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크푸드의 대량생산과 유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지구 한편에서는 수십억 명이 굶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십억 명이 비만으로 고통 받으며 암과 심장병, 신종 전염병 더 나아가 인간 광우병과 같은 신종 질병으로 죽음에 처하는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빈발하는 시기이다.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아래 전쟁은 지구 곳곳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오직 지역적 패권과 이윤을 위해 각축하는 각국정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일 뿐이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에 취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세계가 유일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이러한 그들만의 세계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주의와 그 현대적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위기는 일부 땀질 처방만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현 체제가 바로 문제라고 판단하며 다른 대안과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단지 보건의료제도 부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즉각적 대안 및 중장기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건강과 대안이라는 연구공동체를 출범시킨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숨겨진 문제들을 파헤치고 이에 대안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우리는 문제를 폭로하고 대안을 찾아가면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사회제도에 저항할 것이고, 이 사회에서 피하기 힘든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쟁이 초래하는 인간의 생명과괴에 저항할 것이다. 기존 사회제도를 옹호하는 학문적 분야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분야별, 이슈별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찾으려는 건강,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 대안은 인간의 건강이, 그리고 인간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도그마를 넘어서려 한다. 대안은 우리에게 열려있으며, 다른 세상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찾아내어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에게 ‘건강’과 다른 세계를 위한 ‘대안’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건강과 대안>은 이를 찾아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려 한다.

2008년 10월 18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